

세계적인 수준의 방재전문 기관이 궁극적 목표

취재 / 李 斗 洪 (홍보부 과장)

1983년 10월 원대한 포부와 증차대한 사명감 아래 여주벌에서 첫 삼을 뜨며 출발한 국내 최초의 방재시험소가 마침내 건축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업무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화재로 인한 각종 재난을 빈번히 겪으면서도 과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되풀이 되는 대형 참사에 속수무책이었던 우리 현실로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선 여러나라에 비해 조금도 손색 없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최첨단을 향한 방재 활동의 첫 발을 내디디며 무한한 긍지를 느낀다.

승용차로 오전 9시 30분에 여의도를 출발, 약 1시간 40분만에 91km를 달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공사에 여념이 없는 경기도 여주군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에 내렸던 비로 고속도로는 축축이 젖어 있었고 그때문에 앞차의 바퀴가 튀겨내는 진흙 비말(飛沫)이 차의 앞유리를 계속 더럽혀 시계를 가리는 바람에 시험소 입구에 다다를 때까지 취재팀은 줄곧 거기에 신경을 써야만 했다.

시험소 출입문을 들어서자 멀리서도 우리를 알아보고 손짓으로 인사하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사실 거리나 교통편의를 따져보더라도 결코 가깝지 않은 위치임에도 전혀 거리감을 못느끼는 까닭은 물론 사내 체육대회차 두번이나 방문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손으로 만든 방재시험소라는 사실이 더욱 더 애착을 갖게 하는 탓이리라.

사무실에 들어서자 주욱 자리에서 일어나 반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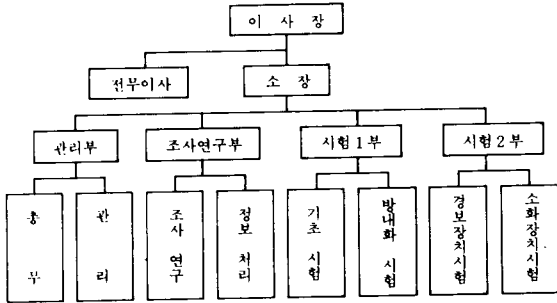
맞아준다. 본부로부터 이주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인지 구태여 악수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金熙亨 부장은 마침 교육관계로 부재중이었고, 孫泳來 부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 직원들과의 반가운 인사를 마치고 나니 점심시간이 됐다. 취재팀이야 점심 한 끼였지만 이곳 근무자들은 하루 세끼 식사를 울안에서만 해결할 수 밖에 없으니 식사 때마다 조금은 지루한 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방재시험소가 태동한 것은 1980년 12월 31일 재무부의 설립인가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라 할 수 있다. 그 전부터도 내부적으로는 시험소 설립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관련자료의 수집 등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이 있어왔고, 또 관계부처에서도 이 일을 적극 권장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능을 갖는 기구의 설립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인데다가 화재예방에 관한 시험 연구를 통하여 국가적 손실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의 소임이 구라는 관점에서, 출발시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었다. 그후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기관으로서 설립 업무에 착수한 것이 1981년 1월, 올해로 만 5년이 되는 셈이다.

작년 10월 이곳 여주 현장에 전원이 이전해 오기까지 그간 지내온 과정에 대해서 개발부 河正鎬 선임연구원은 『1982년 10월 방재시험소 설립추진본부가 발족할 때만 해도 인원이 고작 21명으로서 미개척 분야인 이 업무에 도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화협인 모두가 시험소 업무에 대하여 이해와 적극적인 배려를 해줘서 업무에 따른 고충보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술회한다.

방재시험소의 현조직 및 기구는 개발부와 시험부로 나누어 개발부에는 총무부와 기획개발분야가 있고, 시험부에는 기초, 방내화, 경보장치 및 소화장치 시험 분야를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2개 부를 4개 부로 늘려 좀더 실질적인 업무 운영체제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시험소 설립 계획상의 적정 근무인원은 소장 1명을 제외하고 기술직 33명, 기타 23명 등 총 56명으로 되어있었으나 현재의 T/O에는 기술직 26명, 비기술직 16명으로서 기술직 인원이 계획보다 7명이나 적어, 결과적으로 1명이 담당해야 할 시험기재 및 분장 업무가 많아짐으로써 빠른 기간내에 고도의 기술축적을 달성해야 하는 입장으로 볼 때 인원조정이 채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시험소는 102,500여㎡(31,000여평)의 부지에 1차 공사분인 본관 및 연구동, 식당, 수위실 건물이 '84년 9월에 완공된데 이어 지난 1985년 9월 30일자로 2차 공사분인 특수시험동, 방내화 및 종합화재 시험동, 기숙사가 완공된 후 아직은 특수시험동과 방내화시험동에 시험기기를 제작 설치하기 위한 내부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발주한 기기가 일부 도착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후속 조치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시험소로서의 면모를 점점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동에는 기초이화학시험기기 62종(76개) 등 현재까지 110종에 156개의 시험기기 설치를 완료하여 이미 운전 성능시험을 마쳤으며, 한편으로는 이 기기들 하나하나의 특성 및 조작기술을 숙달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계획된 시험기기 총설치수는 134종에 180개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험기기 설치율은 약 82%에

달하는 셈이며 늦어도 오는 3월말까지는 각 시험기재의 완비는 물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 대망의 업무 출발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고 한다. 시험소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연구업무 ○ 화재기초시험연구 ○ 방화제품시험연구 소방기구 ○ 소화기 및 소화약제 ○ 경보장치(감지기) ○ 소화장치(스프링클러) 방화제품 ○ 방내화(벽, 방화문) ○ 연소(내장재, 방염)	■ 방재기술정보처리업무 ○ 기술정보 수집 제공 ○ 기술정보 회원 운영 ■ 방재조사연구업무 ○ 방재기술기준 조사연구 ○ 각종 방재지침 조사연구 ○ 이재사예 조사연구 ○ 부모물건 위험관리연구
---	---

한편 방재시험소의 관계 담당자들은 시험소 설립의 효과에 대하여

첫째, 국가에 방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방재정책에 기여하고,

둘째, 규격에 맞는 우수한 방화제품을 생산 유도함으로써 방화관련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보험목적물의 위험관리 개선으로 보험산업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외에도 방위산업 등 국가안보 시설에 대한 방재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등 그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기숙사를 둘러보는 길에 이곳 생활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한 시험소요원은 『아직 근린생활시설 등이 덜 갖춰진 약간 외진 곳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19일 기숙사에 입주하면서 부터는 개인적인 일들은 업무적으로든 가까운 시내에 한 번 나가려 해도 30분만에 한 번씩 지나가는 버스를 이용해야하고 이런 불편때문에 간혹 택시를 이용하려면 왕복 5,000원씩의 교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 전혀 안나가고 지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과 후에는 대체로 자기계발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지낸다는 시험소 근무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직은 기숙사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불편이 없다는 하나 취재팀은 느낀 바로는 주거시설이 협소하고 휴게실 등 오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등 복지시설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연구업무와 고립된 생활환경속에서도 활기찬 사무실분위기와 직원들의 밝은 표정에서 선진방재기관의 역군이 되겠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담함을 느꼈다. □